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07.01	↓ 코스닥	1106.08
	(-15.26)		(-19.91)
↓ 금리 (국고채 3년)	3.142	↑ 환율 (원·달러)	1444.60
	(-0.012)		(+4.40)

주담대 고정금리  
7% 육박  
“고정형 유리”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 액션 나서는 행동주의

## 주총 앞둔 대기업 ‘긴장’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올해 주총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 같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갈수록 힘이 세지는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액 주주들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들은 배당 확대에서부터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 경영진 교체, 회사 분할까지 다양한 주주제안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 주총장은 이들의 표 대결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팰리서캐피탈·얼라인파트너스 등 韓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 요구 서한  
행동주의 펀드 ‘단기 차익’ 노린 ‘주주 포폴리즘’ 치우칠 우려 커

### ◆3월 주총앞두고 주주제안 쏟아내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전제로 기업 가치 제고계획에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개,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 도입,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존 경영진 보상에 관한 핵심성과지표(KPI) 중 하나로 반영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유동화 규모 확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실행,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도 요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6일 DB손해보험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 주주서한에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외형 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의 위험 조정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 수립, 지급여력비율(K-ICS)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를 골자로 하는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고도화 등의 제안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1일에는 에이플러스에셋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및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안전 등을 주주제안했다.

지난 13일에는 코웨이에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2인에 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하루 전인 12일에는 덴티움과 가비아, 솔루엠에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KCC

(최근 5년 간 주주제안 상장기업·안전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기업 수	26	29	47	41	43
안전 수	92	98	165	154	168

/자료=아주기업경영연구소

에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서한에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 비핵심 자산인 삼성물산 주식의 유동화,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재수립 등 4대 주주제안이 담겼다. 그러면서 KCC 이사회에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도 요구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가 보유한 유통주식 23만 주(21.1%) 전부를 매입해 상장을 폐지할 것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선임독립이사 제도 등을 12일 요구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BNK금융지주에 사내이사(회장)와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 보상 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 사유에 대해 라이프자산운용은 “이사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올해 주총에서는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1, 2차 상법개정에 더해 이에 기대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다.

울촌 기업자배구조센터는 올해 주총이 “기업자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등 최근의 자본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등 공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의 결관 저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개정 상법 시행 일정과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조 조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주주 이익 제고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차익만을 노린 ‘주주 포폴리즘’으로 치우칠 우려다. 과도한 수준의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주장하며 기업의 성장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과이익(이익)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라며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일 듯하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잃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역 도착 ‘귀경 행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KTX서울역에서 고향에 다녀온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

## “다주택 특혜 철저히회수… 책임·부담 부과”

###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 다주택 돈되게 만든 정치인”

설 연휴 장동혁 대표와 부동산 설전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18일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포스트에 국민의힘 장동혁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

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테슬라 ‘K-인재 눈독’… AI 반도체 인력 유출 우려

일본 머스크 테슬라 CEO

SNS에 태극기+채용공고 공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AI 반도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도 한국인 인재 채용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여러 개의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테슬라코리아의 채용공고를 공유했다.

이는 단순히 AI 반도체를 외부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역량을 직접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테슬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공급업체의 생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3~4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

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팰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큰 규모의 로직·메모리·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미국내 생산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AI 반도체다. 이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제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역량 뿐 아니라 이를 제조할 파운드리, AI 연산장치에 데이터를 제공할 메모리 반도체, AI 연산장치와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까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메트로 韓줄뉴스



▲정동영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네차례…9.19 합의 복원 선제 추진” /사진 뉴시스

▲“계엄극복” 시민 공로 인정 …내달 ‘빛의 위원회’ 설치

▲정희용 국힘 사무총장 “설 민심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민생·심판·혁신”

▲홍준표, 배현진 겨냥 “소정의 절차” 뜻도 모르는데 …무지해”

▲조국혁신당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제안…민주당, ‘연대’ 입장 정리하라”

▲민주·조국혁신당, ‘선거연대’ 논의 순탄할까…양당 온도차 보여



# 韓, 통상압박·정책혼란 여전… 경제 ‘불확실성 영역’ 진단

트럼프, 관세 재인상 가능성 언급  
정권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동 우려  
불확실성지수 석 달 만에 오름세

국내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졌고, 부동산 규제가 새 정부하에서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제 불확실성지수’(EPU)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EPU는 161.62로, 전월의 117.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실시간 계량화한 지표다.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



지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알림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간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의 재인상(15→25%)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미국 측의 불만 표출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조현 외교장관이 워싱턴 D.C.를 찾아 지연 배경 및 대미투자 이행 방침 등을 전달했으나 불확실성 제거에는 실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히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양국 간 비관

세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갈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우라늄 농축 등 안보 협의의 사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는 국내 부동산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내 종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으로, 사전 경고성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입법 지연과 비관세 협의 문제를 조속히 관리하지 못하면 관세 리스크가 실물경제에는 물론 한미 전략 협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통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국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도 여전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6.6원으로 전달(5.3원)보다 1.3원 확대됐다.

EPU는 2024년 12월 계엄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탄핵정국 및 관세협상 경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고, 2025년 5월(267.78)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다시 2025년 10월 미국의 대미투자 ‘선불’ 압박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EPU는 같은 해 11~12월 대미 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통상갈등 완화 기대감에 내렸다가 올해 1월 반등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다주택 특혜 철회회수’서 계속

## 美 생물보안 규제 격상… 바이오 공급망 재편 조짐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 연방조달 제한  
K-기업, CDMO 분야 등 새로운 기회

미국의 생물보안 규제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계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조달 제한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 생물보안법 발효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저자 정지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851조에 포함돼 법제화됐다. 바이오산업을 경제·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개정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BC C-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을 예산관리국(OMB)이 지정하도록 하고, 미 연방정부 기관이 해당 기업의 장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이 특정되는 않았으나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목록은 자동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 시장 및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파급력은 단순한 거래 제한을 넘어 제약바이오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

국, 공급망에 BCC 장비와 시스템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계약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향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체 검증 자료와 서면 증빙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CDMO의 입지 약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생물보안법 도입 전후 비교 설문조사에서 중국 CDMO 파트너십 신뢰도는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점유율 7~10%)가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생산능력과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기준 7~9%의 시장점유율과 84만5000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거점도 확보하고 있어 규제 대응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30년 전후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

의 특허 절벽(Patent Cliff)이 본격화되면, 빅파마의 외부 CDMO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회가 곧바로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입증하지 못하면 대체 수요 흡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생물보안법 발효의 파급효과는 미국 외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 민간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 내 BCC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이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방식으로 미국 현지 연구소·공장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BCC의 장비·시스템 교체 비용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80% ‘15억 이하’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등 영향

새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80%가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5684건 중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81.4%(4627건)로 집계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달 23일부터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4.6%(1978건)로 소폭 늘었다. 이달 들어선 전체 거래 975건 중 850건(87.2%)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은 ‘15억원 초과~25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를 더 낮췄다.

여기에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낮아졌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기 자금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맞물려 고가 아파트 대출이 조여진 데다 비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나오자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1월1일~2월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7229건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71.3%(5156건)로 올해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돌아가며 서울 외곽지역의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뉴시스

/안상미 기자 smahn1@



# “휴대폰 개통하려면 얼굴부터?”… 실효성·기본권 우려 ‘충돌’

## ‘안면인증 의무화’ 강행 논란

내달 23일 전면 시행 방침  
청원 5만9660명 동의 마감  
참여연대·민변, 개인정보위 진정  
인식률·적용 범위 두고 이견

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강행 의지와 시민사회·업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체 수단 없이 강제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시점 조정이나 대안 인증 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별도로 실제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안을 마쳤고,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최소 수집과 최소 침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 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반대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

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종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 정보가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논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률이 95%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려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안면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는 내국인에게 집중되고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본인확인 체계와의 충돌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구조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안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존 스캐너 방식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선택 가능성이 전제된 자유로운 의사”라며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강요된 동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험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트럼프 “日, 795조 對美 투자 1차 착수… 3개 전략분야”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330억弗  
텍사스 석유 수출시설에 20억弗  
조지아 다이아 제조 설비 6억弗  
日 다카이치 105대 총리 재선출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3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 다이아몬드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관세 합의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9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0억 달러(약 48조원)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 수출 시설은 20억 달러(약 3조원)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약 6억 달러(약 1조원)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도쿄 남쪽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항공모함 US S 조지 워싱턴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손짓하고 있다.

/AP뉴시스

고 있다”고 적었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은 해당 시설이 9.2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자 미국의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러트니 장관은 “이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주에 건설될 330억달러의 가스화력 발전소로 미국에서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

했다.

최근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발전 설비와 송배전망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본이 첫 투자 대부분을 가스 발전소에 집중한 것은 미국이 현재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텍사스주 인근의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 사업이다.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주도권 강화와 직결된

프로젝트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에는 첨단 반도체와 방산 물자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이 구축된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면서 아직 첫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한 상황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8일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이날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는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표결을 시행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투표 총수 464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압도적 과반을 확보, 다시 총리로 선임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지명을 거친 뒤 곧바로 조각에 착수한다. 왕궁에서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 마이크론, 경력직 겨냥 ‘2억 이상’ 유인책 전망

》1면 ‘테슬라 ‘K-인재 눈독…’서 계속

테슬라가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한국의 인재들의 해외 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이크론이 국내 반도체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높은 연봉이다.

미국 연봉·보상 정보 플랫폼 레벨스닷컴파이아이에 따르면 마이크론 엔지니어의 E3 직급과 E4 직급의 연봉은 6700만~2억1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론에서 E3 직급의 경력은 약 5년, E4 직급은 약 12년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급 평균이 약 1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마이크론이 경력직들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코리아까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이들의 몸값은 더 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5일 AI 칩 설계 엔지니어 채용공고를 냈다. 테슬라코리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며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는 자신이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주담대 고정금리 7% 육박… “정책 고려 시 고정형 유리”

기준대출자, 변동형으로 갈아탈 때 DSR 규제 받아 한도 줄어둘 수 있어 금융위도 고정금리 대출확대 추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근접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로 나타났다.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연 3%대 중반에서 6%대 초반수준이다.

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도 영향을 미쳤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 3.499%에서 이달 13일 기준 3.687%로 0.188%포인트(p)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2월 기준 2.89%

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9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5년전 고정형 금리로 영끌해 집을 마련한 차주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년 주기로 재산정되는데,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는다. 당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51~2.57%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고정형 금리로 집을 마련한 차주들이 재산정시 고정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대출자가 고정형에서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탈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아 한도가 줄

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의 미래 위험을 반영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있다. 변동형으로 갈아탈 경우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돼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기관의 30년 만기 초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보유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와 채권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또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면서 대출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엔비디아 ‘베라 루빈’ 조기 출하?… 국내 HBM4 주도권 경쟁 점화

루빈, 최대 6개월 조기출하 가능성  
루빈 GPU, 테스트·검증 진행 중

SK하이닉스, 절반 이상 점유율 차지  
삼성전자, 1c 공정으로 승부수 전략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플랫폼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반영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4 시장 주도권 경쟁 역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는행 에버코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기존 예상보다 3~6개월 빠른 시점에 출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부 고객사들이 2026년 2분기 말 루빈 출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관련 HBM4 메모리 수요도 조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루빈 GPU가 이미 제조 단계에 있으며 테스트 및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양산 과정에서 생산 역량, 설계, 하이퍼스케일러의 피드백, 열 관

리 측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빈의 양산 역시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하

며 선제 행보에 나섰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대응하던 삼성의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엔비디아 HBM 공급망은 SK하이닉스가 메인 벤더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의 이번 업계 최초 출하는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마이크론 21%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달 중 고객사 납품을 목표로 HBM4 제품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세대인 HBM3E와 마찬가지로 1bD램 공정 기반으로 HBM4를 제작 하되 로직에선 TSMC의 12나노 공정과 협업한다.

삼성전자는 HBM에는 재설계를 마친 1c 공정을 적용하고 로직에는 자체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HBM4 세대까지는 원가 구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단기간에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신 공정일수록 제조 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HBM 경쟁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을 기점으로 HBM4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검증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초기에는 출하 속도보다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벤더가 누구인가가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보스턴다이나믹스 경영체제 개편… 연구 책임자 퇴진 잇따라

IPO 앞두고 조직 재정비 전망 제기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에서 주요 임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경영 체제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콧 쿤더스마 보스턴다이나믹스 연구 담당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쿤더스마 부사장은 하버드대 공학 및 컴퓨터공학 조교수를 지냈으며 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에서 박사



스콧 쿤더스마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 연구 부문 부사장. /보스턴다이나믹스

후 연구원으로 활동한 로봇공학 전문가다. 그는 2018년 보스턴다이나믹스에 합류한 뒤 연구 조직을 총괄해왔고, 지난해 6월 로봇 연구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

했다. 이후 강화학습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접목하는 연구를 주도하며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

경영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설립때부터 핵심멤버로 활약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플레이터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7일부로 은퇴할 예정이다. 2019년 취임한 플레이터 CEO는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산업 현장 투입을 확대하고,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Stretch)’를 앞세워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 기반을 다져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아론 손더스 최

기술책임자(CTO)가 회사를 떠나 구글 딥마인드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까지 연이어 물러나면서 조직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CEO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아만다 맥마스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EO 직무대행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연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조 현장 자동화와 물류 혁신, 미래 모빌리티와의 융합을 축으로 로봇틱스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그룹 내 사업과의 접점을 넓히며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IPO 추진과 관련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

속으로 사업기획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장 준비를 체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공개와 이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상용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기업 가치 평가액은 약 993억달러(약 145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을 들어 올리는 성능을 선보이며 산업 현장 투입 가능성을 부각했다. 사족보행 로봇 스팟 역시 최근 영국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위험 구역 점검 임무를 수행하며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100% 100% 100% 100%

100% 국내 자본

100% 100% 100% 100%

# 뿌리가 특별한 은행

대한민국 삶의 터전인  
농업·농촌이 뿌리인 특별한 은행  
뿌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금융의 역할을 다합니다

시작이 다른 은행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은?

1961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 출자로 탄생한  
농협은행은 농협 본연의 역할을  
지원하는 범농협 수익 센터로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른 은행



▶ 더 알아보기

NH농협은행은 금융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설 연휴 보낸李 대통령, ‘속도·체감’ 중점 민생 드라이브

집권 2년 차 ‘국민 체감 성과’ 총력 SNS 통해 다주택 투기 근절 언급 가격 적정성 검토 등 물가 관리도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 의무의 무게를 부동산·물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둘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 주재한 참모 회의에서 ‘속도’와 ‘체감’을 강조한 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있다. 올해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데다, 6·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집값·물가 등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높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

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수사보다는 민생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도 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의제를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지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길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를 해소, 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아야 한다고 먼저 언급했고, 정부는 유예 중단 방침을 발표할 바 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메시지도 SNS로 먼저 제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SNS 상으로 선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 관리’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절 밥상 물가 뿐 아니라 생리대·교복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하는 유통 업체에는 ‘세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며 회의 석상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대전·충남 통합 안된다는 野… 與 단독처리

국힘, 절차적 정당성 등 이유로 반대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합의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 and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

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껌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



윤건영(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범수(오른쪽)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정훈 위원장.

/뉴시스

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

/서예진 기자

##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이달 본회의 처리 목표

한병도 원내대표 “24일 본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원위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

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톨(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맞섰다.

/서예진 기자

##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군·경찰 지휘부 7명 함께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쿠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인

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서예진 기자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진단금→치료 전단계 통합보장 생명보험사 ‘원스톱 암보험’ 강화

동양생명 33종 특약 9개로 재구성  
통원담보 하나로 묶어 한번에 가입  
삼성생명 검사부터 재활까지 포괄보장  
AIA생명 생활자금 최대 5년간 1.2억

암 치료가 길어지면서(수술·방사선·약물치료 등 병행) 보장도 ‘진단금 한 방’에서 ‘치료 여정 한 번에’로 옮겨가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특약은 단순하게 묶고, 최신·고액치료와 비급여 부담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암보험’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암보험을 출시·개정하면서 특약을 패키지로 지화하고, 치료 단계(검사→치료→회복)를 통합 보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올해 초 ‘(무)우리WON 하는암보험’을 내놓으면서 ‘특약 다이어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수술·통원·주요치료·특정치료 관련 33종 특약을 9개로 재구성해 유사 담보를 그룹화했고, 통원 담보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암 치료에서 병용요법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항암방사선·약물·표적·면역

항암·양성자 치료비 등을 포함한 치료 특약을 강화했다. 가입은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연령은 만 15~80세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특약 구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필수 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달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를 개정 출시하고 ‘검사부터 재활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AT’를 신설해 영상·정밀검사,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통증완화, 재활치료까지 치료 과정을 포괄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로봇수술, 일부 표적·면역 항암치료, 양성자 방사선치료 등 비급여 영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AT’를 추가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선 리간드 치료’ 등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고액 치료비 부담

이 커질 수 있어, 관련 허가치료 특약도 신설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정 상품은 실제 고객의 치료 여정을 기준으로 보장을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AIA생명은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진단·치료·회복의 전 과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되면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1억2000만원 지원하는 구조를 넣었다.

보장 메시지도 ‘최신·고액치료까지 같이’에 가깝다. 면역항암·호르몬·CAR-T 치료 등 약물치료와 중입자 치료와 함께, 반복 진단은 최대 8회·총 7억5000만원까지 대비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365일 24시간 전문의료진 상담, 간호사 병원 동행 등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A생명은 “이번 상품은 암진단부터 치료, 회복, 일상 복귀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고객의 더 나은 회복 경험을 돕고자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현대건설 ‘생산적 금융’ 협력

금융주선·투자연계 등 자금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에서 현대건설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자금 수요에 맞춘 최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실무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신한은행은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중개거래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금융 협력을 강화하며, 프로젝트별 금융자문, 금융주선,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 솔루션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 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을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통해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금융이 실물 경제의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문구 구입 5% 적립… 신한카드, 청소년 공략

‘처음 체크’ 등 10대 맞춤 체크카드  
방과후 오후 4~8시 2% 추가적립

신한카드가 청소년 시장을 공략하며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10대 고객을 미리 확보해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해 12월 직불·체크카드(개인) 사용 가능 회원 수는 138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카드가 1291만 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하나카드가 878만 1000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강세는 고객 저번 확대 전략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10대 맞춤형 체크카드를 출시하며 청소년 고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한카드 처음 체크



(사진) 상품이다. 신한카드 처음 체크는 중·고 등학생의 소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도 일반 체크카드 상품 대비 낮은 10만원으로 설정하고, 만 12~19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오후 4~8시에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학습 활동과 밀접한 독서실, 도서, 문구 업종 이용 시 5% 적립 혜택이 마련됐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카페 업종에서는 기본 5%에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8시 2%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10대를 위한 포토부스, 온라인 쇼핑 관련 포인트 혜택도 있다. 인생네켓, 포토이즘 등 인기 포토부스를 포함한 사

진관 업종에서 5000원 이상 이용 시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준다. 지그재그·무신사·올리브영 등 쇼핑몰에서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10대를 위한 금융 플랫폼도 열었다.

10대 금융 플랫폼 ‘솔(SOL)페이’는 선불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10대 고객의 ‘잔액 위주’ 금융 생활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 쓴 돈, 계좌에 남은 돈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소년 고객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교보문고와 제휴해 매달 전자책(e-Book) 한 권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틴즈도서관’, 접속 시간에 따라 매일 최대 5000 포인트를 증정하는 ‘눈치 게임’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하나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 금융 지원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 ▲자금 운용 ▲자산 이전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관리 명가(名家) 하나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채널인 PB센터, Club1 등을 연계해 생활비 관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오른쪽)이 김지태 롯데호텔앤리조트 개발본부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리는 물론 상속·증여 등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자산 관리와 자산 이전 수요를 반영해 유언대용신탁 등 리빙트러스트 기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 신한은행, 골드바 구입 고객에 커피쿠폰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골드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복 골드바로 전하고, 커피쿠폰 받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골드바를 구매한 고객 전 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신한 골드바 선물하기’는 2018년 처음 출시됐으며,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면 제3자에게도 골드바를 선물이 가능한 서비스다. 고객은 ▲3.75g(한돈) 골드바 3종 ▲1g 골드바 2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돌잔치, 생일, 기념일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춘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매년 연도별(해) 디자인을 적용한 골드바를 출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디자인 골드바를 지난 2일 출시했다.

/나유리 기자

## NH농협금융, 포용금융 3종 세트 선택

NH농협금융은 서민·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신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낮추는 포용금융 3종 세트(SET)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8조원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포용금융은 15조4000억원이다.

NH농협금융은 캐피탈·은행·저축은행이 포용금융 신상품(포용금융 3종 SET)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우선 NH농협캐피탈이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2030 청년 안아드림(dream)’ 신규 대출 상품을 지난 2월 5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요건을 낮춤으로써, 초기 경제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소득 요건을 한 단계 더 낮춤으로써 신용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만기 시까지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의 일부를 NH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K-기업, AI 기반 프리미엄 욕실·주방 라인업 대거 공개

## KBIS 2026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소개  
드로잉 로봇 통한 체험 콘텐츠도

LG전자 'SKS 런드리 솔루션' 공개  
딥러닝 기반 AI가 세탁·건조 제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에 인공지능(AI)기술이 대거 탑재된 프리미엄 욕실·주방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다.

미국주방욕실협회(NKBA)가 주관해 17~19일(현지시간) 열린 'KBIS 2026'는 올해로 62회째이며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약 700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를 주제로 약 112평 규모의 전시를 마련하고, 한층 고도화된 AI 기술이 탑재된 냉장고, 세탁건조기 등 최신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올랜드에서 열리는 'KBIS 2026'에 참가해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또 데이코의 럭셔리 빌트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독특한 전시 연출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굴곡진 벽면에 컬럼 냉장고가 완전히 숨겨지는 연출로 인테리어와 가전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조화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을 위해 색다른 체험거리도 마련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으면 드로잉로

봇이 관람객의 얼굴을 스케치해 스티커로 제작해 제공한다.

관람객들이 이 스티커를 벽에 붙이면 삼성전자의 전시 주제인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라는 문구가 완성된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AI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을 갖춘 미국 특화 가전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약 303평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SKS'와 'LG



LG전자가 'KBIS 2026'에 참가해 주택과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맞춤형 프리미엄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

시그니처(SIGNATURE)' 등 프리미엄 가전 ▲핵심 가전 부품 기술 기반의 고효율 가전, ▲북미 B2B 시장을 겨냥한 건물 관리 플랫폼 'LG 씽큐 프로' 등을 소개한다.

특히 29인치 SKS 위시코보·건조기 등으로 이뤄진 'SKS 런드리 솔루션'을 처음 공개한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제어로 드럼의 회전 속도를 정밀 조절해, 6모션 세탁·건조 성능을 구현

한다.

조리대·수납장·가전기능을 통합한 아일랜드 시스템 제품도 전시된다. 조리대 아래 숨겨진 '히든 인덕션'은 사용할 때만 불빛으로 화구가 표시되며 '일체형 후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조리대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 밖에도 '36인치 컬럼(Column) 냉장고·냉동고', '36인치 폴플렉스 인덕션 쿡탑' 등 SKS 주방 가전 신제품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북미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 컬렉션으로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아이코닉 컬렉션'은 북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탈을 주 소재로 사용됐다.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테일러드 컬렉션'은 그린, 화이트 등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강조했다. '심리스 컬렉션'은 럭셔리 가구 브랜드 '폴리폼(Poliform)'과 협업해 돌출된 부분 없이 가구 라인에 맞춰 밀착되는 빌트인 스타일을 구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HD현대重,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사' 유력후보 거론

입찰 막바지... 3개 그룹 최종후보  
글로벌 조선·정비 거점 확장 기대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규 조선소 운영권 입찰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HD현대중공업-소마텍 컨소시엄의 선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현지에서는 이 컨소시엄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입찰을 HD현대의 글로벌 조선·정비 거점 확장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모로코 현지 매체 블라디(Bladi)는 모로코 국립항만청(ANP)이 카사블랑카 해양산업단지 운영사 선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고 최근 전했다.

카사블랑카 신규 조선소 사업은 모로코 ANP가 발주한 국제입찰로, 카사블

랑카 항에 조성되는 조선소의 개발·설비·운영·유지보수를 30년간 맡을 운영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조선소는 21헥타르 부지에 드라이도크와 9000톤급 리프팅 플랫폼 등을 갖춘 아프리카 최대급 조선·정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배경으로는 선박 수리 수요 확대가 꼽힌다. 러시아 제재 이후 대체 정비 수요가 모로코로 이동하고, 모로코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상선 100척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의 최종 후보는 3개 그룹으로 압축됐다. ▲이탈리아 업체 ▲중국·스페인·모로코 컨소시엄 ▲소마텍이 HD현대중공업·타기쿠제이 스타론과 구성한 한국·타기·모로코 컨소시엄이다. 소마텍은 모로코 항만·해양 인프라 분야 주요 기업으로,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건설에도 관련한 것으로 알

려졌다. 평가는 기술 60%·재정 40%로 진행되며, 입찰서 검토는 마무리됐고 최종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조선·해양 매체 마리티타임이그제큐티브는 HD현대중공업의 카사블랑카 운영권 참여를 베트남·필리핀 진출, 인도·미국·페루 협력 등과 함께 국제 전략의 연장선으로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소를 직접 '소유'하기보다 30년 장기 운영권을 통해 운영을 맡고 기술·노하우를 이식하는 방식이 인도(코진조선소 협력)·미국(에디슨 수에스트 파르티너십)·페루(잠수함 협력) 등과 같은 흐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모로코는 인건비가 국내보다 낮고 유럽·아프리카 접근성이 뛰어나 유럽 선박 수리·정비(MRO) 수요를 흡수할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입찰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경쟁

구도는 선명해지고 있다. 모로코 경제매체 미디어스24는 최종 후보 중 하나인 '마리나 메리디오날·라디 홀당·닝보 신리' 컨소시엄이 보도자료를 통해 건조·수리·개조·해체를 아우르는 종합 거점화와 조선소 중심 생태계 조성을 내세우고, 선주사·해군 수리 사전 계약 및 어선 발주 확보 등을 주장하며 경쟁력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사블랑카는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인데 남유럽 정비 수용역량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운영 거점 가치가 크다"며 "현지 인건비가 국내보다 낮아 비용 경쟁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선주 접근성이 좋아지고, 베트남·필리핀·사우디 등 기존 해외 거점과 묶으면 권역별 네트워크 시너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1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증기터빈 구매 계약 서명식에서 양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2B장(앞줄 왼쪽)과 다니엘 프로차즈카 두산스코다파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은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두산에너지빌리티

## 두산에너지빌리티 체코 원전시장 본격 진출

두코바니 원전 설비 공급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원전 시장 확대에 나섰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해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서명식은 1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규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대규모 협력 계약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코 정부가 강조해온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의 일환이다. 계약 대상은 증기터빈과 발전기, 터빈 제어시스템으로 총 2기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 남아도는 철광석... 시장 펀더멘털 악화 전망

수요 둔화·공급 확대 가능성 동시 제기

중국 철강사 철광석 채고 증가와 신규 광산 공급 확대 전망이 맞물리며 글로벌 철광석 시장의 공급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기준 중국 철강사 철광석 채고가 1840만 톤(전주 대비 +3.3%)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준철을 앞둔 비축 수요 영향이 컸다. 채고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철광석 가격은 769위안/톤(전주 대비 -18위안)으로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채고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계절적 수요다. 호주 자원시장 분석 플랫폼 디스커버리 알럿은 제철소들이 춘절 연휴 기간 생산 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원자재 재고를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만으로 가격 약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업 모멘텀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철강 생산이 구조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광석 수요 역시 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수요는 글로벌 철광석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중국은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국으로, 철강 생산 변화

는 글로벌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은 이러한 수요 둔화 속에서 철광석 시장이 올해 더 어려운 펀더멘털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ING은 국제 철광석 벤치마크 가격 기준 2026년 연평균 가격이 톤당 약 9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급 확대 요인도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시그널 오션은 세계 최대 미개발 고품질 철광석 광산인 아프리카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가 생산 확대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급 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시만두는 올해 약 2000만 톤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연 1억 2000만 톤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주요 철광석 확장 프로젝트 역시 2026~2027년 사이 완료되면 연간 약 5000만 톤 생산 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

다. 장기적으로는 직접환원철(DRI)과 전기로 확대 등 제철 기술 변화도 철광석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철광석 가격이 일방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광석 선물은 저점 이후 톤당 760위안 이상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가격을 지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오는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올해 경제 목표와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 하락은 원가 요인이지만 철강재 가격도 원자재 흐름과 수급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 하락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 2.5mm 발효밸브 매직… ‘숨쉬는 김치’ 글로벌 식탁 오른다

##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 임 경 환 이노패키지 대표

고작 2.5mm 크기의 숨구멍이 ‘K-푸드’의 대표 상품인 김치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신선하게 배송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포장용기에 뚫린 작은 구멍이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마법을 부린다.

유통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발효식품인 김치의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이는 한국에서 배로 떠난 김치가 유럽이나 미국 동부에서 K-김치를 찾는 세계인의 가정에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숨쉬는 발효 밸브’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 5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개발했다. 한국에선 이미 특허를 내놨고 중국에서도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

“배추김치에는 배추, 마늘, 생강 등 보통 11가지의 주재료가 들어간다. 이들 재료가 유기적으로 융합하면서 맛을 내는데 핵심인 발효 과정에서 수 많은 미생물이 생기고 이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는 몸에 좋은 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없애줘야한다. 산소도 차단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어떤 포장이든 산소를 막는게 어렵다.”

임경환 이노패키지 대표의 설명이다.

일본에는 마이크로펀칭이라는 기술이 있다. 작은 구멍은 이산화탄소가 빠지고 국물은 가뒀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고어텍스는 기체를 내보내고 물분자가 못들어오게 막는다.

임 대표의 숙제는 이산화탄소를 빼고 산소를 차단해야했다. 그런데 산소 원자



“김치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 산소 차단 ‘비법’ 5년 연구 끝에 의료기기 소재 활용 원웨이·투웨이 밸브 개발 포장 김치 6개월 신선도 보장… 다양한 용기에 활용성 높아 발효식품 없는 나라 없어… 우리 기술, 세계가 써야할 것”

가 2개 결합한 이원자 분자인 산소(O<sub>2</sub>)보다 ‘탄소 원자 1개+산소 원자 2개’로 이뤄진 3원자 분자인 이산화탄소(CO<sub>2</sub>)의 크기가 더 크다. 큰 것을 나가게하고 작은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대표는 “주사기 등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재를 활용해 원웨이 밸브와 투웨이 밸브를 개발했다. 원웨이 밸브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투웨이 밸브는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포장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올라가는데 이 기술을 적용해 포장한 김치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신선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호텔의 김치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배경에도 이노패키지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존엔 김치를 포장하면서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가스흡수제를 넣어야했다. 하지만 흡수제의 성능은 최장 6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아무리 잘 만든 포장용기라고 하더라도 미세한 틈으로 산소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 김치가 오래되면 하얗게 변하는 골마지가 생기는 것도 산소 때문이다. 산소와 함께 균과 나쁜 곰팡이가 같이 들어와 내용물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임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숨쉬는 발효 밸브는 내부 가스는 배출하고 외부 오염물질과 산소는 완전 차단한다. 이는 비닐포장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 캔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밸브 접착 부분도 숙제였는데 온도 변동성이 심한 악조건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김치의 국물이 새지 않으면서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노패키지의 기술력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인정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연구소가 진행한 김치 품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0일(보관 온도 5~10℃) 동안 총 6개의 시료, 즉 1번(완전 밀봉 파우치), 2번(PET병), 3번(원웨이 밸브 적용 이노 발효 파우치), 4번(원웨이 밸브 미적용 이노 발효 파우치), 5번(원웨이 밸브 적용 이노캔), 6번(원웨이 밸브 미적용 이노캔)에 대해 실험을 했다.

6개의 시료 중 원웨이 밸브를 부착하

지 않은 4번, 6번 시료의 김치가 실험 30일차부터 하얀 골마지가 생겼다. 6번은 90일차에 골마지가 김치 표면 전체를 덮을 정도도 심했다.

저장 90일차에 포장지 내부의 기체조성을 분석한 결과 1번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산소가 나왔는데 특히 4·6번 시료의 산소가 15~20% 정도로 높았다. 4·6번은 질소와 이산화탄소 비율도 일반 대기와 유사해 포장지 내부에 기체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웨이 밸브를 적용한 3번, 5번 시료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발효와 부패는 다르다. 김치는 발효 식품이다. 와인, 된장, 간장, 치즈 등도 모두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일본의 기무치는 발효 식품이 아닌 절임 식품이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식이지침 가이드라인에 한국의 김치가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발효 식품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김치 등을 과연 발효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 김치는 제조 과정에서 유통기간을 늘리기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는다. 발효 식품에 해선 안되는 약품을 처리하기도 한다. 첨가물을 쓰지 않고 제대로 만든 김치를 우리 기술을 적용해 포장하면 발효식품의 대명사인 김치를 온전하게 세계인의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이노패키지의 숨쉬는 발효 밸브는 비닐, 캔, 유리 등에 구멍을 뚫고 붙이기만 하면 돼 적용도 매우 간단하다.

“발효 식품이 없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에 필요한 밸브의 양이 한 달에 약 15억 개 정도다. 그 중 1억 개 정도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우리 기술은 전 세계가 써야한다고 자부한다.”

/천안(충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대… 핵심금속 확보전

2035년까지 연평균 12.87% 성장 전망  
습식제련·AI 선별로 회수율 90%대

배터리 소재 재활용 시장이 전기차 확산과 순환경제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핵심 광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공급망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 금속을 회수하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 산업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12.8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5년 133억1000만 달러(약 19조원)에서 2035년 446억7000만 달러(약 64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소재 재활용 산업은 사용 후 배터리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핵심 금속을 회수해 다시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재투입하는 구조로 전 기차와 ESS 확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가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뉴시스

기술 고도화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상업화된 재활용 공정 가운데서는 습식제련 방식이 선택적 금속 회수와 높은 회수율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식제련 역시 복합공정 도입 등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니켈·코발트 등 주요 금속의 회수율은 90% 이상에 이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선별·해체 기술 도입도 효율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 설비 확장과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전처리부터 후처

리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아이에스 동서 계열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은 수도권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2만 40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폐배터리 확보부터 블랙매스 생산, 리튬·전구체 복합액 생산까지 이어지는 재활용 밸류체인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역량을 보유한 고려아연은 배터리 소재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며 리사이클링 기반 핵심 금속 확보에 나섰다. 성일하이텍은 블랙매스 및 양극재 원료 회수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며 국내외 생산 거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에코프로씨엔지 역시 폐배터리에서 블랙매스를 생산해 이를 그룹 내 전구체·양극재 생산 밸류체인과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정책을 본격화하며 성능 평가·분류 체계 마련과 순환자원 인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리튬 회수율 95% 이상, 순도 99.5% 이상 수준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AI 기반 선별·해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재활용 효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 “향후 10년, 신뢰 기반 도약의 결정적 시기”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한국상조산업협회 제 4대 회장 취임  
협회 통합, 기능 강화 최우선 과제 제시

한국상조산업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사진)는 “앞으로의 10년은 상조산업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필수 산업으로 자리잡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가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돼 회원사와 함께 상생·혁신·책임을 중심으로 라이프케어 산업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문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상조산업협회 제 8대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 협회를 이끌게 됐다.

문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조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곁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산업 고도화와 신뢰 기반의 질적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 통합,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협회가 진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산업과 회원사를 대표하고, 정부·국회·유관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업계 공통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산업을 단순한 장례 서비스 산업이 아닌 ‘라이프케어 기반 산업’으로 재정의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상조 서비스는 장례를 넘어 워딩·교육·여행·헬스케어 등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협력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정보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상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가상현실 노하우 로봇에 심는다… 게임업계 피지컬AI 주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 구성해  
월드·로보틱스 파운데이션 연구  
업계 첫 산업용 AI 인프라 개발

크래프톤, ‘루도 로보틱스’ 출원  
SKT 컨소시엄 핵심멤버로 참여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정부 주도 피지컬 AI 국가과제에 참여하며 산업용 로봇 ‘두뇌’ 기술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생성형 AI 경쟁이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AI를 의미한다. 게임사가 축적해 온 가상 환경 설계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은 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해 피지컬 AI 연구에 참여한다. 단순 게임 내 NPC 고도화를 넘어 제조·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의 AI 전문 법인 NC AI는

## NC AI K-피지컬 AI 얼라이언스



NC AI K-피지컬AI 얼라이언스 컨소시엄.

/NC AI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피지컬 AI 모델 학습을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개발’ 과제에 ‘K-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해당 과제는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WFM’과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RF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기술은 ‘월드 모델’이다. 현실의 물리 법칙과 환경을 가상 공간에 정교하게 구현해 AI가 수만 번 이상의 시행착

오를 거치며 스스로 최적 행동을 학습하는 구조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대신, 가상 환경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임 산업이 보유한 물리엔진, 충돌 계산, 공간 인식,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엔씨 측은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설계, 로봇 적용까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소버린 AI’ 체계를 지향한다

는 구상이다. 외산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제가 국내 게임사가 산업용 AI 핵심 인프라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한다.

크래프톤 역시 로보틱스 AI 확장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루도 로보틱스(Ludo Robotics)’라는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정 상품에는 공업용 로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공학 관련 공학서비스, 웹 기반 AI 서비스, AI 기술 상담업 등이 포함됐다.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사업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의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엔비디아는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기업이다. 게임 엔진 기반 가상 환경과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기술이 결합할 경우 산업용 피지컬 AI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된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SK텔레콤 컨소시엄 핵심 멤버로 참여해 모델 ‘A.X.K1’ 고도화를 진행한다. 정부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향후 피지컬 AI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해당 연구 성과가 로보틱스 AI 개발과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향후 제조, 물류, 반도체, 공항 운영 등 산업 전반의 자동화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 빅테크가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게임사가 국가 과제와 연계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데이터와 모델 규모 경쟁이었다면, 피지컬 AI는 공간 이해와 시뮬레이션 정밀도가 핵심”이라며 “가상 세계를 가장 정교하게 구현해 온 산업이 게임인 만큼, 이번 도전이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LG U+, ‘MWC26’서 국내 AI 스타트업 10곳 소개한다

MWC 부대행사 4YFN 참가  
글로벌 기업·투자사 미팅 통해  
기술협력·사업 연계 가능성 논의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스타트업 10개사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10개 AI 스타트업은 MWC 부대행사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한다. 4YFN은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



LG유플러스가 다음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26’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AI 스타트업 10개사를 전세계에 소개한다. (왼쪽부터)케빈 하 사이퍼데이터 대표, 이승현 인헨스 대표, 장인선 페어리테크 대표, 박하연 에임인텔리전스 CTO, 이재호 옵트에이아이 대표.

/LG유플러스

는 행사로, MWC가 열리는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8홀에서 진행된다.

이들 스타트업은 MWC26 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와의 미팅을 통해 기술 협력과 사업 연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항공권, 숙박

비, 부스 임차료 등 현장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스타트업들이 전시와 미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4YFN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에임인텔리전스, 인헨스, 옵트에이아이, 사이퍼데이터, 페어리테크, ICTK, 포트투마루, IHFB, 튜링, 그로비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LG유플러스와 협업 중이며, 이 중 5곳은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에 참여해 기술·사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AI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쉬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협력과 투자,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쉬프트 참여 기업 가운데 에임인텔리전스, 인헨스, 옵트에이아이는 4YFN 참가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4YFN 어워즈 TOP 20’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YFN 어워즈는 디지털 전환, 헬스테크, 클라이밋테크, 핀테크, 모바일 프론티어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해, MWC 기간 중 최종 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을 발표하는 행사다. 올해 톱 20에는 스페인, 영국, 한국 기업이 포함됐으며, 한국 기업 3곳 모두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6 4YFN 참가를 계기로 쉬프트 프로그램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공동 펀드 조성 등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생태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카카오 카톡 ‘에이전트 AI’로 실행형 AI 전략 본격화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 ‘에이전트 AI’를 적용해 이용자 맞춤형 추천과 예약 기능을 고도화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까지 수행하는 ‘실행형 AI’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번 기능은 대화 맥락을 분석해 식당·공연·여행 상품 등을 추천하고,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예약과 결제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모빌리티·콘텐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기반 대형언어모델을 병행해 응답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전제로 개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빛나 기자

## LG CNS-오픈 AI, 국내 기업용 AX 공략

‘챗GPT 엔터프라이즈’ 운영 지원

LG CNS가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용 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 CNS는 최근 오픈AI와 ‘리셀러 파트너’ 및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구현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 CNS는 국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용 챗GPT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도입, 활용,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한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민감한 업무도 비교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 업무 활용도가 높고, 대용

량 문서나 복잡한 자료를 업로드해도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개인용 챗GPT 이용 경험에 있는 사용자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 기업 내 도입 검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AI가 발표한 ‘기업용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대화량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되는 추론 관련 토큰 소비는 약 320배 늘어, 기업들이 AI를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핵심 업무 영역으로 확장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G CNS는 보안 기능과 고난도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오픈AI 론치 센터’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LG CNS의 AI 엔지니어, AI 아키텍트, AI 컨설턴트로 구성되며, 오픈



LG CNS본사 전경.

/LG CNS

AI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컨설팅, 기술 지원, 구축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AI 도입 단계에 맞춰 실제 업무 적용과 조직 확산을 지원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LG CNS는 금융, 제조, 공공,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AX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산업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구글 안드로이드 XR 기반 ‘얼굴 위 AI 시대’ 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격 공개했다.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폼팩터로 꼽히는 XR 기기를 통해 ‘얼굴 위 AI’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새 UI는 시선 추적, 음성 명령, 제스처 인식을 결합한 멀티모달 구조를 채택했다. 메시지 확인, 길 안내, 실시간 번역, 콘텐츠 시청 등을 시야 내 오버레이 방식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형태다.

안드로이드 XR은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염두에 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기존 안드로이드 앱과의 연동성을 높여 초기 콘텐츠 부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 “주가 치솟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투자 부진에 우는 개미

개인투자자 54%, SK하이닉스 매수  
직관·감에 의존한 투자 성향 강해  
“전략 세워 장기적 관점 투자해야”

대기업 부장인 이모(46)씨에게 ‘주식’ 두 글자는 요즘 금기어다. 올해 1~2월 국내 주식에 4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수백만원을 잃어서다. 10개가 넘었던 투자 종목들을 거의 정리하고 아직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다. 이씨는 “‘곧 오르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상승장에서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며 “정신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주식 창도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거셌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2월 들어 투자 성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도 나온다.

## ◆외국인 수익률, 개인보다 높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2~13일까지 개인은 ‘SK하이닉스 몰빵 투



ChatGPT로 생성한 ‘개미 수익률’ 관련 이미지.

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한 종목 순매수만 3조2473억원에 달했다. 이어 네이버(7164억원), 현대차(5026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2억원), 카카오(4029억원) 순이었다. 개인 순매수 상위 5종목의 이달 평균 주가 상승률은 -6.76%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두산에너지(5992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한

화솔루션(2984억원), 셀트리온(2592억원), 아모레퍼시픽(1584억원), 효성중공업(15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18.73%로, 사실상 외국인인 ‘완승’이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 상위와,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개인의 순매도 상위과 일치한다는 점도 특징적이

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두산에너지(5992억원)로 개인 순매도 1위(7329억원)였다. 외국인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산 SK하이닉스(-4조8810억원)를 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다만, 삼성전자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의 저조한 투자 성적은 지난해와 달리 주식 투자의 난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며 “올해는 ‘선수’들만 수익을 내는 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주가 부진한 SK하이닉스에 ‘몰빵’… ‘개미, 감에 의존해 투자’

SK하이닉스에 ‘몰빵’ 투자한 것이 개인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개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6조57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중 54%를 SK하이닉스로 채웠다. 특히 주식 초보자(주린이)들이 대거 매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93만1000원까지 치솟던 SK하이닉스 주가는 2월에만 3.19%하락했다. 현재 주가는 88만원이다.

개인투자자의 성적표가 부진한 것은 투자 전략과 정보 분석력의 차이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는 행

(IB)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은 정보 접근성도 좋지만,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의사 결정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에 반해 개인은 직관 또는 감에 의존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분산도 중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 팔면서 손실이 난 주식은 매도를 미루는 행태가 강했다. 소수 종목을 집중 매매하는 ‘복권형’ 투자, 남들이 사는 종목에 우르르 몰리는 ‘군집 거래’ 경향 등도 관찰됐다. 한 증권사 임원은 “넘치는 정보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보다 스마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유튜브 채널과 리딩방 등에서 선동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오천피(코스피 5000)’ 국면에서 개인들이 끝내 수익을 낸다면 국내 주식 투자 문화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기업분석보고서 80%가 대형주… 쏠림 심화 ‘시총 1조클럽’ 상장사, 한달새 42곳 늘어

코스닥 기업 19.5%인 741건에 불과  
리서치센터 축소·서학개미 부상 영향

국내 증권사리서치센터가 펴내는 종목 분석 보고서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서의 80% 이상이 대형주에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코스닥 종목에 대한 보고서는 약 20%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일부 인기 종목에만 거래와 자금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발행한 기업 분석 보고서는 3795건으로, 이 중 80.47%인 3054건이 코스피 상장 기업의 분석 보고서였다. 코스닥 기업은 741건(19.5%)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발간된 종목 리포트 2만3114건 중 코스닥 종목 비중은 24%(5600건)에 그쳤다. 분석 보고서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도 약 62%(1131곳)나 됐다.

증권가에서는 리서치센터 축소와 서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의 대형주 쏠림 현상’ 관련 이미지.

학개미 부상이 스톱갭 리포트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주식형 펀드 대신 개인 직접투자가 확산되면서 기관 영업 비중이 큰 증권사리서치센터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리테일 영업의 무게 중심이 국내 증시에서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국내 스톱갭 리포트를 발간할 유

인 자체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리서치센터에서 스톱갭이 인기가 있었던 과거에는 담당 연구원이 자문사로 넘어가는 등 매력이었다”며 “지금은 미국 주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스톱갭보다 해외 증시를 커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피·코스닥 상승세 효과

시가총액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365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1조 클럽’ 상장사 수가 323곳 수준이었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42곳(13.0%)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1조 클럽’ 상장사가 238곳에서 249곳으로 늘었고, 코스닥에서도 시총 1조원 선을 넘는 상장사가 85곳에서 116곳으로 많아졌다.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시총 10조 클럽 반열에 오른 종목도 62개에서 74개로 늘었다.

10조 클럽 종목은 대부분(68개)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으나, 코스닥 상장사도 6곳이 포함됐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난달 ‘천스닥’을 달성한 데 힘입어 레인보우로보틱스(약 13조원)와 삼천당제약(12조5500억원) 등 두 곳이 10조 클럽에 새로 합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망의 ‘시총 100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1073조원)가 선두에 나선 가운데 SK하이닉스(641조원), 삼성전자우(104조원), 현대차(102조원), LG에너지솔루션(92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79조원)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단기간에 시가총액 1조 클럽 상장사가 대폭 늘어난 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한 데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5,507.01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작년 말(4,214.17) 대비 30.68% 오른 것이다. /신하은 기자

## 삼성증권, IRP·연금저축 각각 10조 돌파

2025년말 대비 합산잔고 71% 증가

삼성증권은 자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잔고가 각각 10조원을 돌파하면서 1년여 전인 2024년말 대비 합산잔고가 71%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IRP·연금저축 합산잔고는 지난달 28일 기

준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12조2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형 연금(확정기여형(DC형)·IRP·연금저축) 잔고도 17조1000억원대에서 29조1000억원으로 70% 많아졌다.

연금 투자자산 중예선 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입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2024년 말 6조7000억원대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16조원대로 잔고가 138%나 많아졌다. 이는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증권은 이밖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수익률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2(저위험) 3년 수익률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평균(23.12%)의 약 2배 수준(44.87%)으로 안정투자형(저위험) 상품 중 전체 사업자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이석기 대표, 릴레이 캠페인 참여

교보증권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죵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교보증권

동참했다. 이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와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추천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신하은 기자



# aT,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가동 북미·유럽 등 권역별 전략품목 육성

내달 3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히트상품 발굴 등 경쟁력 강화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차세대를 겨냥한 K-푸드의 발굴에 나선다.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망 품목을 선정·지원해 세계 식품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전략이다.

aT는 ‘2026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푸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3일이다.

우선 시장동향 및 잠재력을 고려해 권역별 전략품목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너지를 유도한다. 또 민간 주도의 마케팅을 통해 히트상품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민·관 수출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권역별

전략품목군으로 선정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북미의 발효·간편식품 ▲중화권의 프리미엄 한식·건강기능식품 ▲유럽의 비건·냉동식품 ▲아세안과 중동의 할랄식품 ▲중남미의 길거리푸드 등이다. 또 신선 농축산물과 전통주의 경우, 전 권역에 걸쳐 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 여건에 따라 3가지로 운영한다. 첫째, ‘밸류업’이다. 컨소시엄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K-푸드 소비 붐 조성한다. 둘째, ‘브랜드업’이다. 중소·중견 수출 유망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현지 밀착 컨설팅을 제공해 차세대 히트상품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스타트업’이다. 수출 초보기업의 신규 수출 상품 및 ODA(공적개발원조) 등 특수시장용 제품 개발을 지원해 신규 유망품목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품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선도가

업이 수출초보 기업과 유통망을 공유해 동반 성장을 피하거나, 이른바 스트리트 푸드라는 테마 아래, 떡볶이·음료 등 연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제품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단독 진출 대비 높은 파급력을 낼 수 있다.

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조합해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대규모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등 시장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신규사업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유망 수출 품목을 새로이 발굴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서는 다음 달 3일까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현철 KTR 원장(사진중앙)이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협회장(오른쪽), 한일영 슈어소프트테크 부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TR

## KTR, 자동차 SW 평가장비 국산화 추진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수입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KTR은 지난 13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슈어소프트테크와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기술 시험장비 개발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기관은 인공지능(AI)·네트워크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장비 개발과 국산화를 공동 추진한다. 특히 KTR은 현재 해외 장비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UTOSAR의 보안 모듈인 SecOC(Secure Onboard Communication) 적합성 평가 기능을 적용해 평가 범위를 사이버보안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SDV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차량 내부 통신 보안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평가장비 국산화와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하는 AI 시험평가 인프라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 2곳 적발·제재

‘법인카드 갱’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국제약품 과징금, 동성 제약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병원에 금품과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2곳을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동성 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소형가전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갱’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 제약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 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고,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

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해수부, 안강망어업 등 수산용어 순화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은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

수산분야 용어는 116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에 일본식이나 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

화용어로 선정했다.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맞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 던져놓고 끝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후부, 하천 주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습지 조성 등 공모사업 100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주변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반을 구

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

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 10개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에 완료되며 오는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촌진흥청, 농업인 단체 소통 강화

이승돈 청장, 한종협 6개 단체 간담회

농촌진흥청이 6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여성 농업인 등과 만났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승돈 농진청장(사진)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6개 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기반 강화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과 국가 균형 성장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나이 상관 없이 하나될 ㅋㅋ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 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전남도, 반도체 클러스터 도전장... 전력·용수·RE100 강점

하루 130만t 이상 용수 공급과 17.5GW 규모 재생에너지 가능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구상 본격

전남도가 전력, 용수, 재생에너지 등 준비된 기반을 앞세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가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상 중이다. 전력과 용수 확보 여건에서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



전남광주 반도체 후보지 조감도.

우고 있다.

반도체 팹 6기를 가동하려면 하루 107만t의 용수와 9.3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용수 여유분은 0.9%에 불과하고 전력 공급 역시 송전망 포화로 한계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100%(RE100) 요구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입지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영암호, 금호호, 영산강호 등을 통해 하루 13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전남·광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해상 풍력 확충을 통해 1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용수·RE100 3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남·광주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도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를 하나의 초광역 산업권으로 묶는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권은 인재와 연구개발 중심지로, 전남 서부권은 대규모 전력·용수를 기반으로 한 생산 거점으로, 동부권은 소부장과 미래 융합산업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설계·제조·소부장을 하나의 초광역 권역에서 완성하는 남부권형 반도체 생태계 모델로 수도권과는 다른 전략적 방향이다.

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 지정과 반도체 팹 유치에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올해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전남이 광주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거점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라며 “RE100 국가산단과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연계한 삼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북도

#### 대경권 광역 인재 양성 나선다

경북도는 초광역 연계 산업·경제권 단위 성장을 이끌 대학 중심 대경권 인재 양성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와 대학, 기업, 국책·지역 연구기관, RISE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통합과 연계한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과 협업 기반 성장엔진 인재 모델이 차례로 발표됐으며, 이어 대학·기업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 경남도

#### ‘경남창업포털’ 연계기능 강화

경남도는 도내 창업정보 허브 역할을 위해 운영 중인 ‘경남창업포털’ 누리집의 창업·투자 연계 지원기능을 강화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남창업포털은 창업 지원사업과 투자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도는 2021년 8월 누리집 개설에 이어 2022년 4월에는 모바일 앱을 구축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온라인 IR(기업설명회) 제공, 창업기업·투자사 매칭 지원, 창업지원 정보 대상 기관 확대 등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 보성군

#### 말차 품은 ‘다향대축제’ 5월 개최

보성군이 세계적 말차 열풍을 반영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를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보성 차(茶)’를 포괄적으로 조명을 왔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성 차를 세분화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말차’에 집중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 밀양시

#### 상품권 할인율 12%로 변경

밀양시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핵심은 밀양 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12%로 높이는 것이다. 가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아울러 밀양으로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금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울산시민 안전보험, 작년 445명 혜택

총 8억6000만원 보험금 지급  
개인보험·재난지원금 중복 보증

울산시는 재난과 사고에서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증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가 시비를 들여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

원을 보장받았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노인 보호구역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때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보장금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부터 필수 보장 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영양군 “군민 마음건강 지켜드립니다”

복지센터 홍보·교육사업 추진

영양군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언론·SNS 홍보, 각종 제작용 배포, 지역 행사 연계 캠페인,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홍

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에는 재래시장과 읍·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하고, 9월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정신건강의 날을 전후해 집중 홍보주년을 운영해 군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또한 산나물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정신건강 체험부스 운영, 마음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검사, 포도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군민 참여형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대구교육청, 미래형 과학교육기반 추진

대구과학교육 운영 계획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미래형 과학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대구과학교육 운영 계획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기초과학 탐구역량 강화 ▲과학교사 성장과 도전지원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조성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을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탐구·실험 중심의 기초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교과 시수 중 30%이상 실험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과학실험 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학교기본운영비 3%이상 확보해 과학탐구활동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가설 설정부터 탐구 결론까지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실험 가이드북을 보급해 과학실험수업을 지원한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 과학기반 융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과 깊이 있는 과학탐구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 과학동아리 지원(40개팀), 지역 대학 연계 과학탐구활동(45개팀) 등도 운영한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교육 구현을 위한 수업 공간 구축 사업으로 109개교 대상으로 교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지능형 과학실 온(ON) 실천교사(6명)를 운영해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공동체 지원 등 과학교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운영한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 김해화정초, ‘VEX 월드 챔피언십’ 출전

세계 최대 규모 로봇 경진대회

김해화정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구성된 ‘시나브로 팀’이 국내 최대 로봇 경진대회를 제패하고 세계 무대 출전권을 따냈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연준·송주성·김민준 학생으로 이뤄진 시나브로 팀은 지난달 30~31일 제주 KIS 제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2026 VEX IQ 한국 챔피언십’ 초등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52개 팀, 중등부 39개 팀 등 총 91개 팀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시나브로 팀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



대회 참가 학생들 모습.

/경남도교육청

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VEX 로보틱스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민국 대표로 나선다. 이 대회는 REC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로, 전 세계 60여 개국 24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유통업계, 밸류업 시동... 주주환원·정책 기대 ‘접호재’

**현대백** ‘자사주 제로’ 3500억 소각  
**이마트** 주당 배당금 2500원, 25% ↑  
**롯데쇼핑** 57% 급등, 유통 랠리 동참

만년 저평가에 시달리던 유통주가 달라졌다. 유통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며 코스피 상승의 선봉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적 개선과 정부의 유통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호재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과 이마트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고강도 주주환원 정책을 내놔다. 단순한 배당 확대를 넘어 지배구조 개편을 동반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내 13개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없애는 자사주 제로 경영을 선언했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10개 계열사가 보유한 약 2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또한 현대지에프홀딩스 등 4개 사는 1357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총 3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홈쇼핑 잔여 지분을 취득해 100%



유통업계가 코스피 상승에 기뻐하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에 대해 “주식 교환 이후 현대홈쇼핑 인적분할과 흡수합병을 통해 중간지주사 구조가 해소되면 배당 유입 경로가 단순화되고 그룹 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마트 역시 주주 달래기에 적극적이

다.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배당금을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상향했다. 자사주 소각도 이어간다. 지난해 4월 28만 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를 소각한다. 2026년까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줄인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롯데쇼핑도 결산 배당금을 주당 2800원으로 확정하며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200원 늘렸다.

주주 친화 정책에 이어 주가는 연일

상승세다. 이마트 주가는 최근 3개월간 40% 급등하며 11만원대를 회복했고,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57%가 뛰었다. 현대홈쇼핑 역시 지배구조 개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35.2% 상승했다. 반면 개인 정보 유출에 규제 강화까지 겹친 쿠팡은 미국 증시에서 최근 3개월간 37.3%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가 급등의 배경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전국 1800여개 점

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은 추가 투자 없이도 배송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백화점 3사는 지난 4분기 소비 심리 회복과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고, 면세점 업계 역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 회복과 정책 기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웃으며 2월 들어 ‘KRX필수소비재 지수’는 약 8% 상승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 움직임과 함께 최근 이커머스 시장 내 일명 ‘탈팡’ 현상으로 인한 트래픽 유입이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규제 일변도에서 허용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3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도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3분기까지 부진을 딛고 소비 심리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매출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다. 롯데백화점은 영업이익이 27.7% 급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MZ세대 공략과 초대형 점포 확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이마트, 명절 후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생필품·먹거리 ‘초대형 할인전’  
생리대 50여 종 5000원 균일가  
신학기 겨냥 IT기기·학용품 특가

이마트가 명절 이후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생필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필수 생필품인 생리대를 가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쏘피’, ‘에지미인’, ‘바디피트’ 등 인기 브랜드 50여 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00원 균일가에 구매할 수 있다. 정상이 1만원 이상인 상품 비중이 80%를 넘어 평균 할인율이 50%에 달하며, 일부 품목은 최대 70%까지 저렴하다. 유기농 라인인 ‘좋은느낌’ 등은 1+1 증정이나 다량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내세운다.



이마트가 신학기 노트북, 생리대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이마트

본격적인 신학기 시즌을 맞아 디지털 가전과 학생용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레노버 태블릿’, ‘삼성 갤럭시 북4’ 등 인기 IT 기기를 행사카드로 결제 시 5만원 할인하고, 캐논·엡손 복합기는 최대 20% 저렴하게 기획했다. 잔스프츠, 키플링 등 병행수입 가방은 30%, 캐

릭터 식기와 씨모스 텀블러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학생용 가구인 데코라인 책상 세트와 오피스 체어도 특가로 선보인다. 이 외에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할인한다. 세제, 섬유유연제, 바디용품 등은 1+1 혜택을 적용하며, 브랜드 돈육 앞다리·뒷다리살과 냉동 한우 차돌박이 등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 특히 냉동 한우는 이마트e카드 결제 시 20%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

이마트 이석규 일상용품 담당은 “명절 직후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수 생필품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가격 혜택과 더불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롯데百貨 본점, ‘아트 플래그십’으로 변신

정그림·이건우 작품 19점 전시

롯데백화점 본점이 쇼핑 공간 곳곳에 예술 작품을 얹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롭게 도약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3일부터 본점에서 ‘아트 VM (Visual Merchandising)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별도의 갤러리를 방문하지 않아도 쇼핑 동선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의 테마는 ‘MOVE : IN TRANSIT (감각의 여정)’으로, 쇼핑과 예술을 결합해 고객의 감각을 깨우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는 한국을 대표하



서울시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에 선보인 첫 아트 VM 프로젝트 작품을 바라보는 고객의 모습.

/롯데백화점

는 라이징 아티스트 정그림, 이건우 작가가 참여했다. 지난해 본점의 외국인 매출이 40% 가까이 급증하며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해 ‘K-아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손종욱 기자

## 신세계百貨, 스위트파크 2주년 ‘팝업 총출동’

봄 콘셉트 단독 디저트 대거  
세프 협업 한정 메뉴 출시

신세계백화점이 강남점 ‘스위트파크’ 오픈 2주년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다양한 단독 디저트와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는 ‘신세계 블루밍 플레이버’ 행사를 진행한다.

2024년 2월 문을 연 스위트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저트 전문관으로, 오픈과 동시에 ‘디저트 성지’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24년 구매 고객의 45%,

2025년의 41%가 신규 고객으로 유입됐으며, 이 중 70%가 식품관 외 다른 장르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등 백화점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해냈다.

이번 2주년 행사에서는 봄을 주제로 한 단독 디저트를 대거 내세운다. 유명 세프들과 협업해 ‘비스퀴테리 엠.오’의 ‘생토노레 프랑팡(1만 2500원)’, ‘한과미 의식’의 ‘해빙춘기 기회단(10만원)’, ‘아우치’의 ‘블루밍 베어(1만 4000원)’ 등을 기간 한정으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보안미, 르슬레이 등 20여 개 브랜드가 봄

의 미각을 담은 특별 메뉴를 준비한다. 화제의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릴레이 팝업스토어도 마련했다.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등장해 화제가 된 ‘핫코베이커리’와 유명 인플루언서가 큐레이션한 ‘시녕’ S빵터랜드가 순차적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파미에스테이션 1층에서도 400년 전통의 카스테라 브랜드 ‘후쿠사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최원준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스위트파크가 지난 2년간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 명실상부한 디저트 랜드마크로 성장했다”며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캐나다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는 ‘끝돼 DAY’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 돼지고기 시세가 전년 대비 18% 이상 오르며 육류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마트는 롯데슈퍼와 통합 소싱을 통해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약 200톤의 물량을 확보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행사 기간 동안 ‘끝돼 삼겹살’과 ‘목심’은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50% 할인을 적용해 100g당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특수부위인 ‘항정살’과 ‘등갈비’ 역시 기존 가격 대비 40% 저렴하게 내세운다.

‘끝돼’는 롯데마트가 지난해 론칭한 수입 돼지고기 전문 브랜드로, ‘끝장나는 품질’을 의미한다. 현지 제조사와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점포 내 전문 정형사를 거치는 ‘3단계 정밀 손질’ 시스템을 도입해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품질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롯데마트의 수입 돼지고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 급증했다.

/손종욱 기자



# 스페인 추로스부터 美 아이스크림까지… 해외맛집 韓 상륙

‘츄레리아 산 로만’ 가맹사업 등록  
美 밴루엔·핑크스 핫도그 등 진출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韓 활용  
국내 외식시장 구조변화 신호탄

글로벌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스페인 추로스 맛집부터 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업계에서는 빠른 트렌드 순환과 높은 미식 관심도를 갖춘 한국 소비자 특성이 맞물리면서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을 시장 반응을 검증하는 전략 거점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 추로스 전문점 ‘츄레리아 산 로만’은 지난 6일 국내 가맹사업 등록을 마쳤다.

해당 브랜드는 국내 외식기업 ‘더블에이치에프앤비’와 협업해 한국에 진출했으며 현재 직영점만 운영중이지만 향후 가맹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츄레리아 산 로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는 이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하는 곳으로 2024년 더현대에서 팝업스토어를 진



밴루엔 뉴욕 미드타운 이스트점.

/밴루엔

행, 인기를 실감한 바 있다.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밴루엔’도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와 협업해 국내 상륙을 확정했다.

200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발한 이 브랜드는 비건·유기농 원료 사용으로 유명하며, 2024년 2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매장을 방문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밴루엔을 현재 미국 스낵샵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 트렌드를

리딩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성장 중인 브랜드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직영 스낵샵을 운영하는 한편, 1만여 개가 넘는 리테일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전개하며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경험을 일상 속으로 확장해왔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번 밴루엔 도입을 기점으로 보다 다층적인 디저트 경험을 제안하는 브랜드로의 발돋움을 구상하고 있다.

핫도그 브랜드 ‘핑크스 핫도그’도 한

국 시장에 진출해 더현대서울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매장을 열었다. 1939년 미국 LA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할리우드 스타 방문 명소로 알려지며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외식시장은 트렌드 변화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반응이 즉각적”이라며 “최근 K-푸드 영향으로 한국 트렌드가 해외로 확산되는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을 시험무대이자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진출도 이어진다.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SPC그룹 계열 빅바이트컴퍼니를 통해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은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안착 경험을 다수 보유한 만큼 시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버거 체인 ‘파이버가이즈’는 2023년 한화갤러리아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으며, 첫 매장 오픈 당시 수시간 대기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용산점은 개점 한 달도 안 돼 글로벌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시장의 소비 파워를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단순한 해외 브랜드 진출을 넘어 국내 외식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외식시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신제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피드백 반영 주기도 짧은 편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메뉴·가격 전략·매장 콘셉트 등을 시험하기에 최적 환경이라는 평가다. 또한 한 번 입소문 이 나면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마케팅 효율이 높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 해외 브랜드 도입은 수익 다각화 전략으로 활용된다. 특히 직영→가맹 확장 구조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브랜드 확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브랜드 과잉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 외식시장은 포화 상태에 가까운 만큼 브랜드 차별화 실패 시 단기간 철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화제성만으로는 장기 생존이 어렵다”며 “현지화 메뉴 개발과 가격 전략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서 100여곳 브랜드 메뉴 선택

런치플레이션에 구내식당 이용객 ↑  
외식 브랜드 컬래버 ‘H-로드트립’  
동시다발적 협업 메뉴 수시로 제공  
브랜드부터 인기 셰프 협업 예정도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사업에서 외식 브랜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으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체급식 메뉴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사의 기대치가 높아져 자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에 나선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외식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H-로드트립’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H-로드트립은 현대그린푸드가



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고객들이 ‘간부치킨’ 협업 메뉴로 식사하고 있는 모습.

/현대그린푸드

운영 중인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인기 외식 브랜드나 셰프와 협업해 연내 이색 단체급식 메뉴 100여 개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기존 단체급식업계에서 외식 협업은 단발적으로 협업이 성사되는 브랜드를 그때그때 선보

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처럼 수시로 협업 메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여 곳의 브랜드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1년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기존 제공했던 ‘유가네닭갈비’, ‘프랭크버거’, ‘채선당’,

‘마왕족발’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물론, ‘빽스’, ‘만석닭강정’, ‘로코스’ 등 인기 외식 브랜드의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이탈리아 전문 김호윤 셰프와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의 독일식 소시지 전문점 ‘메쓰거49’ 등 단체급식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협업도 예정돼 있다. 자체 브랜드인 ‘본가스시’, ‘이탈리’ 등의 대표 메뉴도 단체급식 사업장 환경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계획한 100여개 브랜드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간부치킨’과의 협업 메뉴를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발빠르게 선보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메뉴들을 ‘핫 키워드 푸드’로 선정하고 협업을 성

사시켜 고객사에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가 외식 브랜드와의 협업 강화에 나선 것은 런치플레이션으로 단체급식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해진 취향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외식 브랜드 협업 메뉴를 제공하는 날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평균 7~10%가량 증가할 정도로 협업 메뉴에 대한 고객사들의 반응도 뜨겁다.

‘간부치킨’과의 협업이 인기를 끈 것도 한몫을 했다. 고객사로부터 추가 편성 요청이 이어지면서 운영 기간도 기존 한달에서 3개월로 연장한 데다, 제공 규모도 기존 1만 식에서 2만 2천 식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단체급식이 기업의 핵심 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사 임직원에게 다채로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지 파트너’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명절 과식 후 ‘회복루틴’ 음료로 영양 관리”

남양유업, 11종 라인업 제안

남양유업이 설 연휴 이후 과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일상적인 영양 균형 관리를 돕는 ‘회복루틴’ 음료 라인업을 제안한다. 고탄량 단백질 보충이 가능한 ‘테이크핏’, 발효유 ‘불가리스’, 제로슈거 식물성 음료 ‘아몬드데이언스위트’ 등을 중심으로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군을 구성했다.

단백질 음료 브랜드 ‘테이크핏’은 필수아미노산 9종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 설계가 특징이다. 저당·저탄수화물·고단백 콘셉트로 운동 전·중·후 균형 있는 영양 보충이 가능한 제품이다.

▲운동 전후·식사 대용 ‘테이크핏 맥스’ 4종(단백질 24g) ▲수분+단백질 보충 ‘테이크핏 프로’ 3종(단백질 25g) ▲43g 국내 최대 함량 ‘테이크핏 몬스터’ 2종(단백질 43g) ▲간편 파우치형 ‘테이크핏 아쿠아’ 2종(단백질 10g) 등 총 11종의 라인업으로 용도와 강도에 맞는 다양한 단백질 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발효유 대비 당류를 크게 낮춘 ‘불가리스’ 설탕 무첨가 플레인도 장 건강을 생각한 좋은 선택지다. 불가리스 설탕 무첨가 플레인은 원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유당 이외에는 설탕이나 기타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 당 함량을 약 3.4g 수준으로 줄였고, 칼로리도 약 90kcal로



위터형 단백질 음료 ‘테이크핏 프로 샤인머스캣’.

/남양유업

낮춰 식후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900g에서 1.8kg까지 중·대용량으로 출시된 ‘불가리스 플레인 요거트’는 99% 국내산 원유와 불가리스 유산균만을 사용해 샐러드 드레싱, 그릭 요거트 등 다양한 건강 레시피에 활용하기 좋다.

/신원선 기자

## GS25, ‘흑백요리사2’ 상품 80만개 판매

협업 상품 4종, 출시 2주 만의 성과  
호응에 힘입어 후속 상품 출시 예정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협업 상품 4종이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개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GS25는 지난 4일부터 ‘흑백요리사2’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를 비롯해 ‘서울엄마’ 우정욱, 최유강 셰프 등과 협업한 간편식 메뉴를 선보였다. 특히 최강록 셰프와 단독으로 기획한 ‘날치알명란&계란주먹밥’은 출시 4일 만에 10만 개가 넘게 팔리며 초기 흥행을 주도했다.

이 밖에도 우정욱 셰프의 ‘소불고기김밥’, 최유강 셰프의 ‘탐스터샌드’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GS25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후속 상품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19일에는 우정욱 셰프의 ‘전복내장죽’과 ‘황태해장국’을, 25일에는 최강록 셰프의 비빔 소스를 다룬 ‘일식카츠샌드위치’를 선보인다. 3월 중에는 ‘함박갈릭라이스 주먹밥’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GS25가 지난해 10월부터 에드워드 리, 이모카세1호 등과 진행해 온 ‘흑백요리사 컬래버 시리즈’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620만개를 넘어서며 편의점 대표 미식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sup>+</sup>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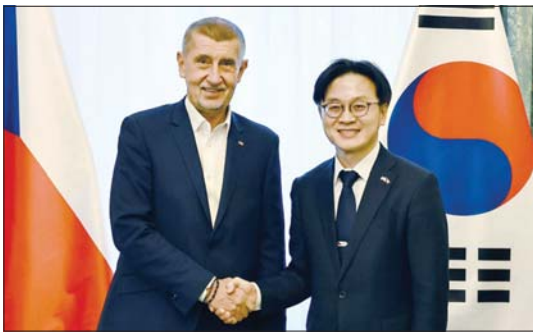
논산 생딸기주스<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sup>+</sup>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행 ‘장관급 협의체’ 신설  
한국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 점검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총리실 회의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에이스침대, 업계 최초 친환경 스마트 사업장 조성  
에이스침대가 에너지 전문기업 엘에스일렉트릭과 협력해 친환경 스마트 사업장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18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충북 음성과 경기 여주공장에 엘에스일렉트릭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5940kWh 규모의 태양광 전기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에이스침대 음성 공장 전경. /에이스침대



동서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평균점수(96.07점)보다 2.33점 높은 98.4점을 획득해 공공기업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동서발전 본사 전경. /한국동서발전



타임빌라스 수원, ‘슈퍼키즈성장센터’ 오픈  
타임빌라스 수원이 지난 13일 7층에 유통사 최초로 ‘슈퍼키즈성장센터’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슈퍼키즈성장센터’는 유아체육과 물리치료를 결합한 유아 성장 전문 브랜드다. 타임빌라스 수원 슈퍼키즈성장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어린이의 모습. /롯데백화점

## 중진공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쇼핑몰 입점과 판매를 지원한다. 교육·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고 이후 콘텐츠 제작,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뒷받침한다. /김승호 기자

# 제네시스, PGA투어와 동행 이어간다… 스폰서 연장

2030년까지 타이틀 스폰서십 후원  
오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최

제네시스는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이어간다. 제네시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재단과 함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재계약 조인식을 열고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사장, 랜디 파커 북미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 대표인 타이거 우즈와 브라이언 롤랩 PGA 투어 최고경영자(CEO)도 동참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1926년 창설된 LA 오픈이 전신이다. 올해 창설 100주년을 맞은 대회다. 이 대회에서 잭 니클라우스가 프로에 데뷔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타이거 우즈, PGA 투어 브라이언 롤랩 CEO,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이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 연장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뷔했고, 타이거 우즈가 PGA에 처음 출전했다.

제네시스는 2017년 제네시스 오픈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이번 재계약을 통해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가게 됐다.

정 회장은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선수, 타이거 우즈 재단과의 파트

너십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후원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계기로 파트너들과 함께 대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가고, 골프를 넘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KT&G “자녀 입학 축하드려요”

460명에게 메시지 카드와 선물  
가족휴가 등 육아친화 환경 조성

KT&G가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460명에게 CEO의 메시지 카드와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KT&G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화만사성’의 일환으로 매년 임직원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가화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올해는자녀들의면역력관리와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선물을 구성했다. 각 연령대에 맞춰 정관장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 홍삼 제품과 패브릭 필통, 자녀 개개인의



KT&G 임직원 가족이 축하선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름이 각인된 연필 등으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주재원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세트가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회사는 2015년부터 출산후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 밖에도 정시퇴근을 위한 ‘PC셋다운제’와 ‘가족사랑휴가’, ‘직장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KCC글라스, 서초구와 청년자립 돕는다

경제적 독립 지원 프로그램

KCC글라스는 최근 서울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6년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Dream홈씨씨’는 KCC글라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초구 내 자립준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주거, 경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Care)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



2026년 ‘Dream홈씨씨’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태욱 KCC글라스 상무, 전성수 서초구청장, 조미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정연 방배아트유스센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팅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2025년까지 총 130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SOOP, 프로야구 연습경기 생중계 확대

스포츠 플랫폼 경쟁력 강화

SOOP이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

SOOP은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해외 현지훈련지에서 치러지는KBO 구단들의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시즌기간에도 팬 접점을확대해 스포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중계에는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이 참여한다. 이용자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실시간 경기를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과 후원 기능을 통해 팬 참여형 응원 문화도 이어간다.

SOOP은 정규 시즌 외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며 스포츠 스트리밍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연습경기와 훈련 장면 등 기존 방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제공해 차별화를 꾀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발간

코트라, 16개 유형 정리·공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용 우수사례집’을 내고 기업들이 응용할 수 있는 우수 이용 사례 16개 유형을 정리해 공개했다.

코트라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으

로 주요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수출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애로사항을 극복한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부음

▲민병란씨 별세, 서수민(DK그룹 회장)·서홍민(엠투엔그룹 회장-엠투엔, 리드코프, 신라젠)씨 모친상·김승연(한화그룹 회장)씨 장모상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경기도 의왕시 선영(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764-1). 02-2072-2020

▲류창하(향년 100세)씨 2월 17일 별세, 우애순씨 배우자상 류태한, 류철한(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 류한숙, 류한규, 류한기, 류기남씨 부친상 = 18일, 서안동농협 장례식장 203호(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22)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영천호국원. 054-854-9980

▲한관수씨 별세, 한승훈(이스트 CA 전무이사)씨 부친상, 김영란(CJ프레시웨이 전락지원담당)씨 시부상 = 17일 오전 10시, 경찰병원 장례식장(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431-4400

▲송말순씨 별세, 박수정씨 모친상, 손종하(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씨 빙모상 = 17일,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인천가족선영 오전 7시, 032-517-0710

▲목윤상씨 별세,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1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기 광주시 시간가족추모공원. 02-2258-5979



# 자율주행, 통제불능 준공영제 수술 해법



## 하 성 용 의

## 스마트카 ‘TALK’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더 이상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다. 시민의 이동권이 한파 속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는 사실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구조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문제는 임금 인상도, 일시적 재정 투입도 아니다.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의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선 면허를 사실상의 영구 자산으로 보장하면서, 운영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는 경영 효율화도, 서비스 혁신도 작동할 수 없다. 비용 부담은 공공이 지고, 노사협상은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구서'가 된다. 시민은 요금 인상과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의 비용을 떠안는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유럽 다수 국가는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경쟁 입찰로 위탁하는 노선입찰제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모두 공공이 노선과 요금을 통제하고, 민간은

성과 중심의 계약을 통해 운영에 참여한 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운행 의무와 강력한 공공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버스 노선 축소 위기를 자율주행으로 돌파하고 있다. 후쿠이현 에이헤이지, 이바라키현 히타치모타 등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이미 상용 운행 단계에 진입했다. 핵심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을 '교통 복지 유지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은 더 직접적이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무인 버스가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자율주행 기반의 공공 이동 서비스를 실증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로 옮기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자율주행은 교통비용 절감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의 위험성과 일자리 감소, 기술 성숙도, 공공성 훼손 등을 앞세워 ‘자율주행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버스 사고는 대부분 인적 오류에서 발생하며 버스 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겪

고 있다. 또 자율주행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준공영제가 이미 공공성을 잠식하고 있다. 기술을 공공의 통제 아래 두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율주행의 진정한 의미는 비용 절감 그 자체가 아니다. 자율주행은 노동 집약적 구조에 갇힌 버스 산업을 기술 집약적 공공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전제로 노선입찰제, 경영화 확대, 공공 직접 운영이라는 제도 개편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 만들어내는 잉여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요금 인하, 심야·외곽 노선 확대, 이동 약자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때, 기술 혁신은 비로소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진 준공영제를 세금으로 연명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통해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 자율주행은 미래의 선택지가 아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버스 준공영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붕괴 직전의 준공영제를 살릴 마지막 선택이다.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 대출규제와 2금융 ‘풍선효과’



## 기지 수첩

안재선  
〈유통&라이프부〉

풍선효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빚낸 표현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 풍선의 튀어나오는 곳마다 모두 누르면 어떻게 될까.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만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1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렸다. 지난달 한 달 새 2조 4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

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화두다. 지난해 통틀어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27조6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지난 2023년과 4조 6000억원 감소 폭을 보였던 2024년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부푼 풍선을 또다시 누르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대출 영업 자제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营业을 한시 중단했다. 공격적인 대출營業을 자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상호금융은 대표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작정 대출을 조이면 지역 서민들이 대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길이 사라진다.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작정 놀러서만은 안 된다. 가계대출이라는 큰 틀을 다시 쪼개야 한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과거 분양을 받았을 때 입주 잔금 대출 등이 있다”면서 “과거 분양 시 받았던 입주 잔금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wtotjs4187@metroseoul.co.kr

/wotjs4187@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사모로 고난도 의 질답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김상회의 四季

부자가 되고 싶어요



논문을이 반짝이는 삼십대의 P씨가 상담을 왔다. 요즘 주식시장이 난 린데, 운이 오려고 하는지 어쩌다 사놓은 주식이 거의 세 배 정도의 이득 을 보았다. 그랬더니 자신이 생기며 향후 자신의 재운이 어떻게 궁금해 졌다고 한다. 세상의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멋진 부자가 되고 싶단 생각이 그저 허망한 꿈만은 아닐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려다. 소소한 부자는 자신의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법 아니던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한 번쯤은 가져보았던 바람이자 꿈 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물 인연이 닿지 않음에도 돈에 대한 열망을 놓 지 못해 하는 일마다 손해가 되어 불운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펴내기도 한 다. 상담을 온 무진생의 P씨는 재성(財性)이 월지에 뿌리를 내리니 노력 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재 물이 운 좋게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을 맺어줘야 한다.

이번에 큰 목돈의 재운이 발현된 것은 주식을 사놓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운기가 반쳐 줄 때 꽃이 활짝 피듯 재운이든 명예운이든 발현이 된다. 재운이 견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성의 방향을 따라 묵직하거나 치열하게 잘 살피서 투자를 한다면 재운 있음을 실감한다. 한때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구가했던 어느 재력가의 성공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치부심하며 “피보다 진하게 살아보자.”라는 노력 끝에 천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물으면 자신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바닥을 쳤던 사람이라 말한다. 바닥을 치면 올라올 일밖에 없다. 운명 타하기 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자리부터 바뀌 볼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div>  <div>메트로미디어</div> </div>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21-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서울대 정시 이탈자 80% ‘자연계’… ‘의대 이동’ 고착화

서울대 정시합격자 224명 등록포기  
자연계 180명… 5년 새 최대 규모  
인문계열, 전년비 29.4% 줄어

공대·첨단계열서 이탈 두드러져  
일부 학과 실질 합격선 하락 예상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이탈이 정시모집에서 다시 한 번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 합격자 가운데 180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대 자연계 이탈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6학년도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은 총 224명으로, 이 가운데 자연계가 180명(80.4%)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다. 등록포기 비중의 대부분이 자연계에 집중된 셈이다.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추가합격 상황〉

대학명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증감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모집	추가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문	392	73	20.2%	452	65	14.4%	434	35	8.1%	466	51	10.9%	457	36	7.9%	-9	-15	-29.4%
자연	579	127	21.9%	721	88	12.2%	769	164	21.3%	754	178	23.6%	781	180	23.0%	27	2	1.1%
예체능	96	2	2.1%	172	2	1.2%	170	3	1.8%	169	6	3.6%	170	8	4.7%	1	2	33.3%
계	1037	202	19.5%	1345	155	11.5%	1373	202	14.7%	1389	235	16.9%	1480	224	15.9%	19	-11	-4.7%

/종로학원

서울대 자연계 정시 등록포기 인원은 2022학년도 127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164명, 2025학년도 178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확대 이전인 2023학년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됐던 2025학년도(178명)보다도 등록포기 인원이 늘면서, 자연계 이탈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과별로 보면 공대와 첨단계열에서 등록포기가 두드러졌다. 첨단융합학부는 16명(모집정원 대비 21.9%)으로 전년보다 33.3% 늘었고, 전기정보공학부는

15명(28.3%)으로 25.0% 증가했다. ▲간호대학(14명) ▲산림과학부(11명) ▲약학계열(10명) ▲컴퓨터공학부(9명) ▲화학물공학부(8명) 등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이 발생했다. 자연계 40개 학과 중 37개 학과에서 등록포기가 발생한 반면,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서는 등록포기가 없었다.

인문계열은 등록포기 인원이 36명으로 전년(51명)보다 29.4% 감소했다. 학과별로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에서 각각 7명이 등록을 포기했지만, ▲심리학과 2명(모집정원 대비 22.2%) ▲정치의

교학부 2명(7.7%) ▲지리학과 2명(25.0%) ▲역사학부 1명(10.0%) ▲영어교육과 1명(12.5%) 등이 등록을 포기하며 인문계 전체를 보면 자연계만큼 구조적 이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인문계 등록포기 역시 의대와 치대, 한의대의 중북 합격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연계 대규모 등록포기로 서울대 일부 자연계와 공대 학과는 실질 합격선 하락이 예측된다. 상위권 합격자가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추가합격자가 채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최상위권 수험

생의 진학 선택이 입시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별 학과의 합격선 변동 폭은 공식 점수 공개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흐름은 서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자연계 등록포기 인원이 연세대(432명)와 고려대(435명) 역시 대규모로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특히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변수로 꼽았다.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 동시 합격자 가운데 의대를 선택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수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최종 선택은 여전히 의대에 쏠리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 이후에는 서울대 자연계 등록포기 현상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현장 수리검정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  
거리상 근접성 바탕으로 검정 신속처리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19일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검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계량기 수리검정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전기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이번 현장 중심의 검정 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를 서초구 소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현장 검정하게 된다. 시는 거리상 근접성을 바탕으로 검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의 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현진 기자

은 계량값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처리돼 있으며, 수리 시 봉인 해제로 인해 조작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수리검정 대상이 된다.

검정 절차는 신청·접수 후 현장검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검정 일정이 결정된다. 이후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방문해 전기차를 실제로 충전하며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구조검사에서는 충전기 명판의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오차검사에서는 이동형 검정장비로 계량 정확성을 측정해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판정한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해 최종 합격 처리되면 그 즉시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 경기도,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확대, 저소득 선정기준 완화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전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원)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유지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교원 역량개발 시스템 ‘G-LINK’ 도입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AI 기반 교원 연수체계 혁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원 역량 개발 시스템인 ‘G-LINK(GIGE Level Indicator for Navigating Key Competences)’를 개발·적용하며 교원 연수 체계의 혁신에 나선다.

‘G-LINK’는 연수생의 역량 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반 분석 도구다. 온라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량·정성 자료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 및 집단별 성취도는 물론 보완이 필요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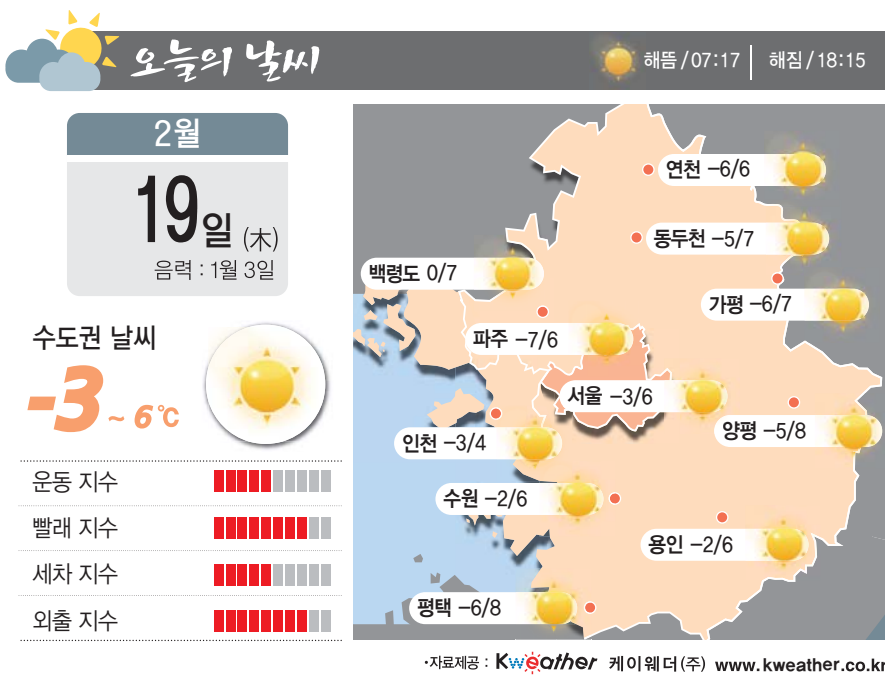
국제교육원은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G-LINK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항 개발과 검증을 통해 시스템

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G-LINK’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수생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고, 마이크로러닝(Short-form 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해 연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G-LINK’는 올해 2월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를 시작으로 국제교육,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연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다카이치 日 총리, 중의원 본회의서 제105대 총리 지명 받아 /사진 뉴스시스  
▲인도네시아, 니켈 통제 강화…미·중 핵심광물 경쟁 속 EV 공급망에 파장

▲中 “남중국해 전비 경계순찰”…미·호·比 연합 순항훈련 맞서  
▲“北 김정은 딸 주애,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인물 될 수도”

▲“트럼프, 국립공원들의 역사와 과학 말살” 보존기관들 소송전  
▲美 캘리포니아, 테슬라 판매정지 보류…‘자율주행’ 허위광고 시정 판단





해외 외식브랜드  
한국시장 본격 상륙  
글로벌 거점 활용  
L2

metro®

Life

제네시스  
PGA 투어 동행  
스폰서 연장계약  
L4



궁중비책 선케어 제품군.

## 조선 왕실에서 전해진 ‘원자 피부 보양법’ 전 세계 아이들을 지키는 선케어 기술로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궁중비책 ‘선케어’ 제품군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1800만개를 돌파했다. 2011년 출시 후 15년만에 거둔 성과다. 해당 제품군은 총 4종으로 구성된 가운데 ‘위터폴 선펙션 마일드’는 단일 품목으로만 1100만 개의 판매고를 올려 브랜드 전체 성장을 끌어올린 메가히트 주인공이다.

궁중비책은 제로투세븐이 2008년 공개한 영유아 및 민감성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다. 현재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동시 흥행하며 국경을 넘는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 선케어 제품군, 누적 1800만개 판매 FDA OTC 등록 등 제품 안전성 입증 순한 성분으로 온 가족이 활용 가능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미국 뷰티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기록하는 중이다. 지난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및 사이버먼데이 행사에서 궁중비책이 올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43% 급증했다. 특히 위터폴 선펙션 마일드는 처음으로 베이비 관련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톱10에 진입해 경쟁이 치열한 미국 유아동 선케어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알렸다.

또 지난해 7월 아마존 프라이데이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868.6% 늘어나 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모이스처 선쿠션 마일드는 베이비 선펙션 카테고리에서 16위로 이름

을 올리며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궁중비책은 앞서 2025년 3월 20일 아마존에 공식 입점하며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에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선케어 4종 전 제품이 동시에 ‘베이비 선펙션 프로텍션’ 카테고리 톱100에 들어갔다.

이처럼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제품력이 뒷받침됐다.

위터폴 선펙션 마일드, 모이스처 선쿠션 마일드, 프레시 선펙션 마일드, 베이비 이지워시 선펙션 등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등록했다. 제품 안전성, SPF 표기, 품질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것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글로벌 인증도 확보했다.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등록 제도인 C PNP에 등재됐고 국내 최초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영유아 자외선 차단제 등록을 획득했다.

궁중비책 선케어 제품군의 또다른 인기 요인은 아기 피부는 물론 민감한 성인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순한 성분이다. 브랜드 독자 성분으로 특허를 출원한 ‘로얄 오지 콤플렉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유래한 아기 목욕법인 ‘원자 피부 보양법’에서 착안했다. 매실나무, 뽕나무, 화화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등 5가지 자연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으로 아기 피부 건강에 중점을 뒀다. 피부 내 전달력과 흡수력을 높이는 스킨 배리어 리포좀 기술까지 더해졌다.

온 가족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도 특징이다.

‘위터폴 선펙션 마일드’는 수분감이 높은 선펙션 제형 제품이다. 자외선 UVA와 UVB,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을 한번에 차단한다. 토너나 크림을 대신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인 만큼, 피부에 산뜻하게 밀착, 흡수된다.

#### ‘로얄 오지 콤플렉스’ 독자성분 특허 中·日 등 글로벌 시장 유통망 확장 “‘K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목표”

‘모이스처 선쿠션 마일드’는 퍼프가 내장된 제품이며 ‘프레시 선펙션 마일드’는 막대형 제품이다. 톡톡 두드리거나 쓱쓱 닦바르는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베이비 이지워시 선펙션’은 세안 비누 또는 클렌징폼으로 1차 세정만 해도 간편하고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궁중비책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유통망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궁중비책은 일찍이 2016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중국 내 유아 전용 선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 선제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중국 주요 이커머스 채널인 티몰, 타오바오 등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수년간 베이비 선케어 카테고리 상위권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일본 뷰티 시장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유아동 전문 유통 기업 토이저러스를 비롯해 아카짱혼포, 버스데이, 이온몰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헬스

앤뷰티 스토어 왓슨스와 협업하고, 싱가포르 최대 베이비 페어 ‘마미스 마켓 2025’에 참가하는 등 향후 동남아 지역 시장을 정조준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이후 지난해 9월 태국에서는 대규모 입점을 추진해 동남아 시장 확장에 속도를 냈다. 왓슨스, 센트럴 백화점, 더 몰 쇼핑몰 등 태국 전역의 총 118개 매장과 쇼피, 라자다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병행해 온·오프라인 동시 공급 전략을 세웠다.

궁중비책 관계자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영유아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이 한 명에게 투자하는 소비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며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유아 1인당 객단가는 상승하는 새로운 소비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소중한 아이에게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 ‘K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궁중비책 ‘위터폴 선펙션 마일드’ /제로투세븐



▲‘메달 순위 1위’ 노르웨이, 인구·GDP 대비 순위도 ‘선두’  
▲손흥민, 북중미 챔피언스컵 에스파냐전 선발… 3개월 만에 골 사냥  
/사진 뉴시스

▲‘한국계 투수’ 오브라이언, 종아리 부상으로 WBC 참가 불투명  
▲탁구 박강현, 31계단 오른 세계 45위… 신유빈은 13위

▲오타니, 첫 라이브 피칭부터 158km 광… “지난해보다 훨씬 앞서”  
▲‘이강인 26분 출전’ PSG, UCL PO 1차전서 모나코에 역전승



# SAMSUNG



## Galaxy Book6 Pro

Galaxy AI

**아카데미**

새로운 시작, 더 잘하고 싶어서

행사기간 2026. 01. 01 - 03. 31

AI 노트북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갤럭시 AI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 사양은 국가, 지역, 또는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amsung.com